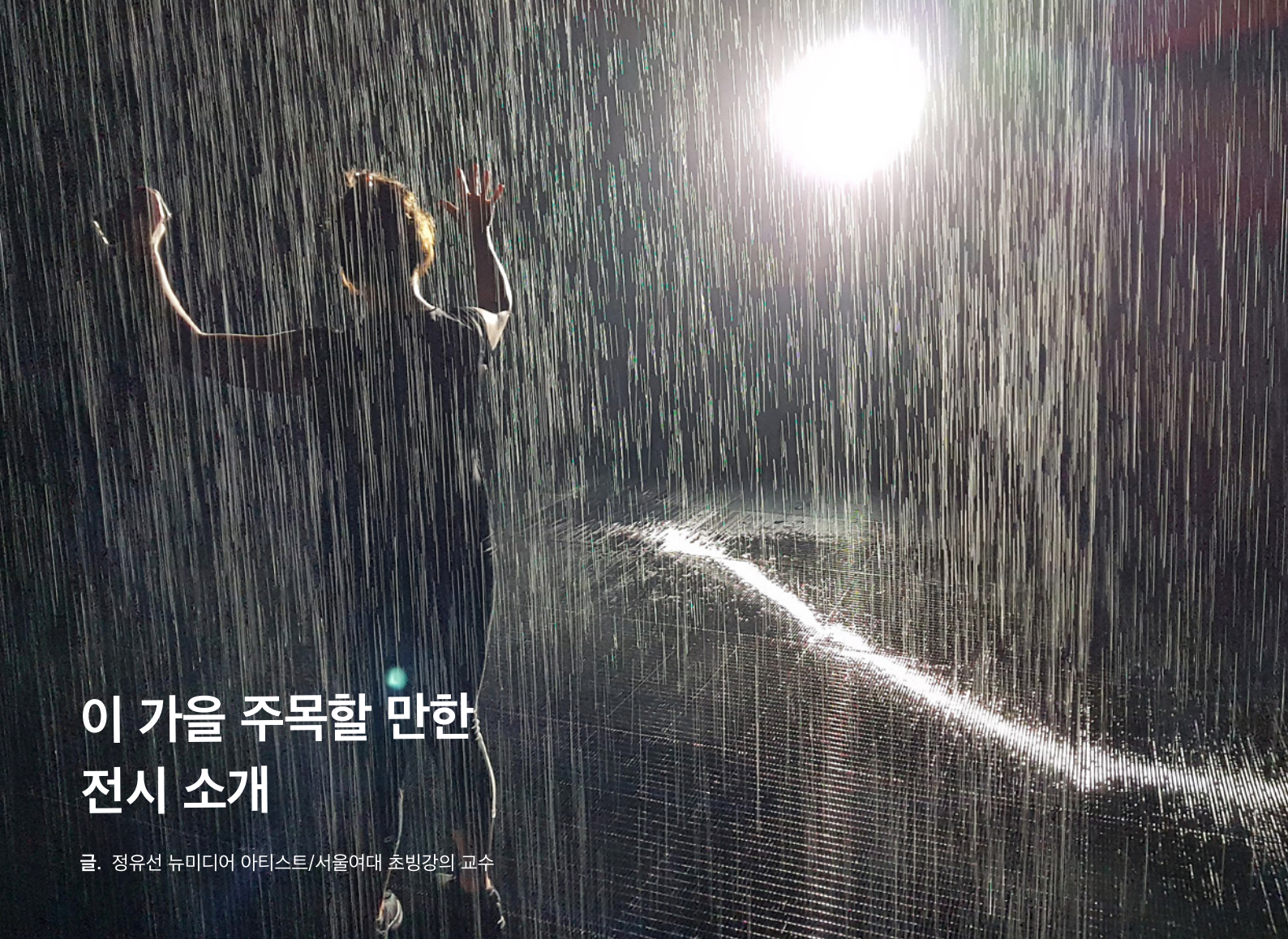




이 가을 주목할 만한 전시 소개

글. 정유선 뉴미디어 아티스트/서울여대 초빙강의 교수

<레인 룸 Rain room> 2018, 랜덤 인터내셔널, 아랍 에미레이트, 샤를라르 아트 파운데이션에 영구 설치되어있는 인터랙티브 인스톨레이션 / 출처 : 위키피디아

가을이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하지만 사실 1년 중 가을은 좋은 전시가 가장 많이 열리는 계절이기도 하다. 마음의 양식을 채우기 좋은 가을, 시원한 바람과 따스한 햇볕과 함께 감성의 양식도 채울 수 있는 가을 전시회 두 곳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랜덤 인터내셔널 Random International : 피지컬 알고리즘> 전시,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 2019년 10월 11일 ~ 2020년 1월 31일

인공의 해를 보며 선택을 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가? 혹은 퍼붓는 빗속을 젖지 않고 걷는 상상해본 적이 있는가? 사람들의 공상 속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기술을 통해 구체화하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상상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예술이 지금 현실화하여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상상은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이 2003년 영국의 테이트 모던의 터빈 홀에서 인공의 해를 사람들에게 선사한

작품이었으며 두 번째 상상은 랜덤 인터내셔널 아티스트 그룹의 작품, 레인 룸이 이 상상을 현실화시켜줬다. 말 그대로 랜덤 인터내셔널의 레인 룸은 비가 퍼붓는 전시장 안을 젖지 않은 채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인터랙티브 인스톨레이션으로 2012년부터 뉴욕의 모마(MOMA), 런던의 바비칸(Barbican Centre), LA의 LACMA 등 유수의 미술관에서 전시된 바 있는 작품이다. 전시장 천장에 달려 있는 3D 모션 트래킹 카메라는 어두운 곳을 탐색하는 관람자들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관람자 주위의 약 6피트 반경으로 물의 흐름을 막는다. 떨어지는 빗물은 약 25,000ℓ의 셀프 클리닝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사운드와 빛을 품어내는 설치 전경과 어우러져 관람자들은 그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초현실적인 풍경을 경험하게 된다. 이 레인 룸 설치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예술과 기술 그리고 자연의 교차점에서 흥미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아티스트 그룹 랜덤 인터내셔널(Random International)의 국내 첫 개인전이 인천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에서 2019년 10월 1일 막 전시 오픈을 했다.

이번 전시에서 레인 룸(Rain Room) 작품을 만날 수는 없지만 인간의 본능과 지각에 의한 신체의 움직임을 다양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재해석한 다른 작품들이 포함된 이번 전시를 통해 인간과 작품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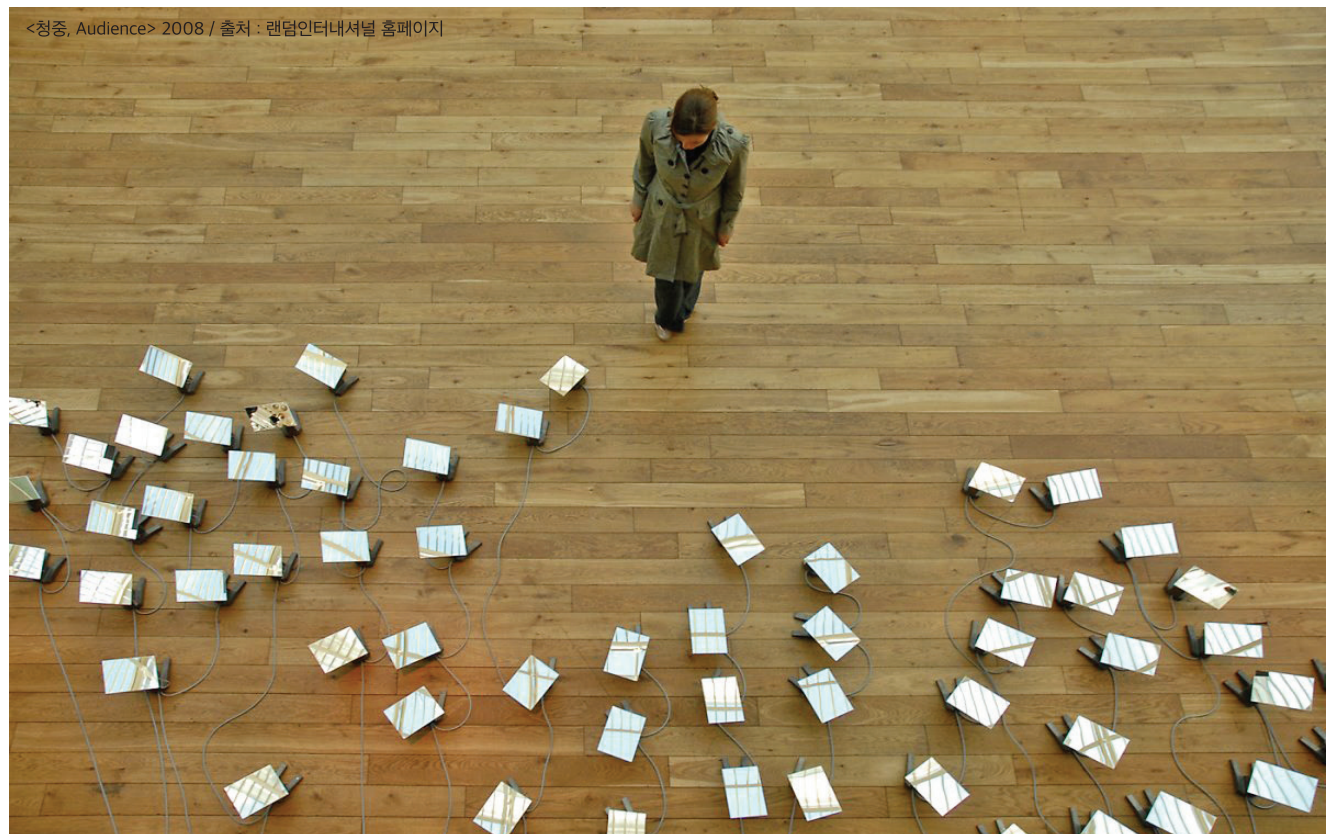
랜덤 인터내셔널은 한네스 코흐(Hannes Koch)와 플로리안 오르트크라스(Florian Ortkrass)가 2005년 결성한 아티스트 그룹으로 런던과 베를린에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작업하며 대규모 팀으로 성장했다. 감정적이며 신체의 강렬한 경험을 통해 기계화된 세계에서 인간을 탐구하며 관객 참여 중심의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인터랙티브 아트를 통해 인간의 지각, 의식, 움직임 등을 실험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용: 바라보기>, <모사: 따라하기>, <개체: 독립

체 단계>의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누어 작품을 이해하기 쉬운 키워드로 분류하여 전시를 구성했다.

<조용: 바라보기>에는 2008년도 작품 <Audience>과 2016년도 작품 <Fragments>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작품 <Audience>는 관객을 비추는 바닥에 놓인 60개의 거울 조각을 통해 반사된 자신의 이미지를 관찰하면서 동시에 관찰당하는 경험을 작품을 통해서 해 볼 수 있다.

<모사: 따라하기>에서는 사진 프레임 안에서 서서 본인의 사진 자화상을 찍고 찍은 즉시 캡처된 자신의 자화상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2010년 <셀프 포트레이트> 작품, 관람자의 전신 이미지를 3차원의 작은 빛의 점으로 분해하여 작품에 추상화된 이미지로 나타나게 보이는 <퓨처 셀프> 2012년 작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퓨처 셀프 Future Self> 2012, 안무가 웨인 맥그리거(Wayne McGregor)와 맥스 리히터(Max Richter)의 곡 그리고 현대 무용가의 협업을 통해 작품이 시현된 광경 / 출처 : 랜덤인터내셔널 홈페이지



아모레 퍼시픽 뮤지엄에서 열리는 '바바라 크루거-영원'의 카탈로그와 전시 장면
/ 출처 : 아모레 퍼시픽 뮤지엄 홈페이지

<바바라 크루거: 영원 Barbara Kruger: Forever> 전시, 아모레퍼시픽미술관(APMA), 2019년 6월 27일 ~ 12월 29일

용산의 아모레퍼시픽미술관(APMA)에서 개관 일주년을 기념하여 2019년 6월 27일부터 동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로 손꼽히는 예술가, 바바라 크루거(Barbara Kruger, 1945~)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바바라 크루거: 영원, Barbara Kruger: Forever>는 아시아에서 열리는 작가의 첫 개인전으로, 1980년대의 초기 콜라주를 포함한 주요 작품과 영상, 최신 설치작업 및 전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한글을 이용한 설치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본 전시에서는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선보여 온 작업을 모아둔 아카이브룸도 함께 구성되었다.

바바라 크루거(Barbara Kruger)는 1970년 후반부터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성된 작품을 제작해 온 미국의 개념 예술가이다. 그녀는 출판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다

<개체: 독립체 단계>에는 인공지능 기술, 빅 데이터, 웹 아트를 통해 만들어낸 명상적인 작품 <Swarm Study>, 에드워드 머이브릿지, 뒤샹 등이 인간의 움직임의 미래주의적인 방법으로 표현했듯이 <Fifteen points> 작품은 현대의 미래주의적인 테크놀로지를 사용해 작품을 완성해낸다. 현재 가장 최신의 뉴미디어 아트의 경향을 볼 수 있는 전시로 흥미진진한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마주하며 이 가을을 즐겨보자. 전시는 내년 1월 30일까지이다.



왼쪽, <무제, 너의 몸은 전쟁터이다, Untitled, Your body is a battleground> 1989 / 출처 : 위키 피디아, 오른쪽, <무제, 너의 평안은 나의 침묵이다, Untitled, Your comfort is my silence> 1981, / 출처 : rthistoryarchive.com

양한 대중매체로부터 차용한 흑백 사진 이미지와 간결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결합한 작품 형식을 완성했다. 그리고 지난 40여 년 동안 이미지와 텍스트를 기본 요소로 두는 작품들을 미술관 전시뿐 아니라 포스터, 빌보드, 신문, 잡지, 설치 작품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선보이며 일상에 내재된 정치·문화적 권력 구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2005년에는 제51회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 평생 공로 부문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로스앤젤레스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의 교수로 재직 중이며,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을 오가면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바바라 크루거의 작품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페미니즘, 사진과 언어 작

업 등 다양한 각도에서 논쟁을 일으킬 만한 작품으로 여겨져 왔다. 그녀의 작품은 대중적 전달을 목적으로 일상적 생활 공간에 침투하여 시각적 기호로서 작용했다. 그녀의 작품은 갤러리나 미술관 외부뿐만 아니라 거리, 빌보드, 대형 전광판, 버스 범퍼 스티커, 신문, 잡지, 일상 소비재와 같은 공공의 영역으로 개입해 들어가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매스미디어 이미지의 차용과 텍스트의 결합 방식을 통해 대중의 인식 체계에 비판적 자극을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그녀의 작품 안에 ‘흑백 이미지와 붉은 색, 흰색의 텍스트’라는 간단한 구성 요소는 우리 사회의 많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텍스트를 통해서 겉으로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미지를 의심해보게 한다. 작품의 텍스트는 사색을 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처음에는 단도직입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간단해 보이는 텍스트는 곧 정의, 권력, 젠더에 관한 질문들과 연관되면서 작품의 의미를 복잡하게 만든다.

<무제, 너의 평안은 나의 침묵이다, Untitled, Your comfort is my silence> 1981에서는 암흑 속 누군가가 ‘쫓’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자세는 ‘침묵’이라는 단어로 인해 암흑 속 누군가가 다른 이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작품 속 이미지와 더불어 ‘너의 평안은 나의 침묵이다’라는 텍스트는 곧 침묵을 강요받은 존재가 평안을 얻는 너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번 전시를 위해 바바라 크루거는 최초의 한글 작품을 제작하여 설치했다. 학교에서 한국인 제자들을 통해 알게 된 한국의 조형성에 반해 그가 먼저 미술관에 제작을 제안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와 함께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의 시대에 순수한 미니멀리즘의 조형성을 강조한 세계적인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David Chipperfield)가 지은 아모레퍼시픽 사옥도 산책해보며 이 짧은 가을을 마음껏 만끽해보자. 



데이비드 치퍼필드(David Chipperfield)가 지은 아모레퍼시픽 사옥 / 출처 : 데이비드 치퍼필드 홈페이지